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전영화 편집인 : 이계홍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T. 02)733-0303, 02)733-3991~3 인쇄 : (주)한우리SJM

2017년 (단기 4346년) 1월 12일 (목)

<http://dongguk.info>

제240호

국내 10위 - 세계 300위 대학 만든다

동국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111주년을 맞아 '동국비전 2020'을 중심으로 더 높은 도약에 도전한다.

모교가 추진하는 2020년까지의 핵심 목표는 국내 10대 대학, 세계 300위권 대학으로의 진입이다.

모교는 지난해 11월10일 '개교1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제시한 △미래세대를 위한 캠퍼스 재창조 △세계수준의 융·복합 교육 연구기반 마련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3가지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에도 새로운 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모교는 앞서 2015년 8월, '동국비전 2020'으로 시대정신과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확충과 건실한 운영 ▲참사람열린교육 글로벌 연

개교 111주년 '동국비전 2020' 위해 역량 결집 혜화문 부근 '건학108주년기념관' 신축 구체화

구자 양성 ▲대학본연의 가치창출 ▲신바람 나는 캠퍼스 구축 ▲병원 경영효율화 등이 그것이다.

한태식(보광스님) 총장은 임기 3년차에 접어든 2017년 시무식에서 '대학다운 대학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교육 인프라 구축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후문 부근에 8천여 평 규모의 로터스관과 동창회관 등이 들어

설 혜화문 부근 108기념관 신축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혜화별관 1개층 증축과 함께 정보문화관 옆 5층 규모의 주택을 구입해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교는 지난해 QS세계대학평가에서 전

년대비 93계단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인 444위를 기록했다. 중앙일보 평가에서도 2계단 상승한 17위로 선전했다. 한국경제신문 이공계대학 평가에서는 11위를 차지했다. 또한 6개의 중대형 교육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임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개교 이래 최대의 연구용역비를 수주하기도 했다.

모교는 '동국 후원의 밤'을 비롯해 동국대를 아껴주신 동문들과 큰스님들의 애정에 힘입어 2016년 약정 기부금이 249.7억원을 돌파함으로써 동국대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숫자로 본 동국대

111년 1906년 전신 명진학교 설립 111주년
(53년 동국대학교로 승격)

30만명 개교 이래 배출한 졸업생 수

67.6% 2016년 취업률

260개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
(총 49개국)

10.73%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중앙일보 대학평가 3위)

249.7억 2016년 학교발전기금 기부약정액

6명 2016년 행정고시 합격자 수(전국 9위)

한편 모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교육과 연구 역량이 우수한 교원 초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명실공히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의 비약을 다짐하고 있다.

3월 중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1차 상임위원회 모교법인 개방이사 선임안 논의



2017년도 제1차 상임위원회가 1월12일 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려 2017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안과 모교법인 개방이사 선임에 대한 대책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

2017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의 경우, 3월 하순경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는 사무처에 일임하는 대신 추후 회칙에 따라 총동창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이사회 및 총회 안건은 2016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선출 안건이 부의된다.

이어 모교법인 개방이사 선임안은 "모교법인 개방이사로 추천된 후보자중 1인인 문병호씨의 경우, 오늘의 총동창회 분란에 책임이 있는 소송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국가고시 합격자 상위권 유지

사법 4 · 행정 6 · 입법 1 · 변리사 1 · 회계사 30명

지난해 치러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각종 고시와 자격시험에서 동국대의 저력을 과시했다.

11월11일 발표된 제5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9명 가운데 모교는 △김기웅(법학10) △박연숙(법학00) △배지은(법학09) △이길호(법학04) 등 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에 이어 7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모교는 2014년 11위(5명), 2015년 7위(8명) 등 '법조인 양성의 요람'으로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1월9일 발표된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행정고시)에서는 최종 합격자 278명 가운데 △기만철(경제05 · 일반행정 직렬) △여혜진(경찰행정08 · 검찰직렬) △이승우(정치외교04 · 일반행정(부산) 직렬) △이재권(경찰행정05 · 교정 직

렬) △이한성(행정02 · 일반행정 직렬) △전지훈(경찰행정07 · 일반행정 직렬) 등 6명이 합격했다. 모교는 행정고시 합격자 배출 순위에서도 대학 상위권인 9위에 올랐다.

박형준(전기공학08) 학생은 11월9일 발표된 행정고시 기술직변리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앞서 8월25일 발표한 제51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09명 중 30명이 모교 출신이다. 이는 전국대학 11위에 해당되는 순위이다.

11월9일 공인노무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에서는 김명규(법학90)동문을 비롯한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한편, 행정고시 합격자 이한성 학생은 국회사무처가 8월9일(화) 발표한 제3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경영사를 누렸다.

지면
안내

05면 전순표 고문 인터뷰 06~07면 동국인의 밤 상보 08~09면 단위동창회 10~11면 동문동정

[2] 2017년 1월 12일 (목)

동 국 뉴 스

제240호

신년사

시대 변화에 따라 동창회도 달라져야 한다



전영화 총동창회장

동국가족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특별히 모교 개교 1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자가 세 번 겹치는 올해는 우리 모교가 세 기의 역사를 넘어 세상을 밝히는 또다른 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동창회는 지난 해에 30만동문 시대를 열었으며, 이에 발맞춰 초대 총동창회장이신 만해 한용운선사의 성지 순례, 동창회보 발행, 장학금 및

고시반 지원비 지급, 동문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 모교 정책위원 초청간담회, 성공동문 기업체 탐방, 단체영화 관람 등으로 동문간 결속을 다지고 자부심을 일깨워 습니다.

특히 지난달 13일 열린 '동국인의 밤'은 6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품위 있고 뜻있는 송년행사였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삶-스마트 시티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특강을 비롯한 여러 행사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신뢰와 감동을 전달함으로써 단순히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지성인으로서 세상을 열어가는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만족하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동창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모교당국이 2년 전부터 혜화문 일대에 108주년기념관을 신축하여 그곳에 동창회관이 입주한다는 청사진을 최근 다시 내놓아 동문들의 기대가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동문사회는 동창회관의 조기 신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모교 법인이사회는 우리 모교가 오랜 전통과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사학의 선두그룹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교법인의 개방이사 자리에 동문사회를 대표하는 신망과 능력을 갖춘 동문들이 참여하는 일부터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합당한 절차를 거쳐 제명당한 동문이나 특정인에 의해 추천된 사람이 무리하게 선임된다면 모교는 물론 동문社会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종립대학발전에도 역행하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교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변화, 개혁, 혁신의 선두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타성과 관행에 멈추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내 지도자는 물론 세계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인재로 키워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총동창회는 동국발전을 위한 화합과 희망이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동창회의 역할과 사명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더 많은 젊은 후배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장학사업도 대폭 늘리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 총동창회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모든 동문들이 화합단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난 해와 같이 서로 격려하고 단합하는 가운데 총동창회 발전과 모교의 발전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새해에도 충만한 지혜로 하시는 일 원만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1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전영화

정상영 고문 1억원 쾌척

모교 국가고시반 특별장학금으로



생들을 위해 유용하게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난해 12월13일 '2016동국인의 밤' 행사장에서 사법고시 4명, 행정고시 6명, 변리사 1명 등 총 11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각 5백만원씩을 수여했으며, 나머지는 고시반 지원비로 모교 총장에게 기탁했다.

정명예회장은 2011년과 2012년에도 고시반 장학금으로 각 1억원씩을 기부한 바 있다.

한편 정명예회장은 2014년 일산캠퍼스 상영바이오관 건립에 118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2016년말 현재까지 모교에 총 145억여원을 기부해 자랑스러운 동국인 표상으로 존경받고 있다.

"현 전영화 회장 체제 정당성·정체성 확고"

본회 고문단, 간담회 갖고 입장문 발표

본회 고문단은 지난해 11월11일 간담회를 열고 "현 전영화회장 체제의 총동창회는 사법적 정당성과 많은 동문들의 지지속에 그 정체성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간 친목과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동문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문단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동창회가 모처럼 화합과 안정을 되찾고 있는 이 때에, 두 선배동문을 내세워 '동창회 정상영회를 호소하는 글'이라는 서신을 보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그 순수성이 의심되며 전체 고문단회의에서 중지를 모으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4건 모두는 이연택과 그 측근이 제기한 것으로서 현 동창회가 취하고 수 있는 소송은 하나도 없다. △현재의 불화를 종식시키는 첫 걸음은 법원소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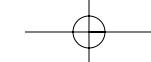
"김선근·김기유 법인이사 사퇴 안하면 특단의 방법 강구할 때가 되었다"

2015년 학내사태 당시 부총학생회장인 김건중 군이 복수를 건 50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얻어낸 제297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2015.12.3)에서의 '이사 전원사퇴 결의'가 재가이사인 김선근, 김기유 동문이 1년여가 넘도록 지키지 않고 있어 학내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두 법인이사는 동문선배로서 후배들로부터 존경은커녕 "자진 조속 퇴진하라"는 총학생회의 공식 서신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동창회는 두 법인이사에게 "모교운영의 최고 임원 동문이 총사퇴 합의정신을 놓지키는 것은 동문사회를 모독하는 망신이고 수치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각 사퇴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과 정의를 보여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띠운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동문은 "더 이상 벼틴다면 이제는 동문들이 자택이나 회사로 몰려가 항의시위하는 등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240호

동 국 뉴 스

2017년 1월 12일 (목) [3]

“개방이사 선임안 5차례 보류…이젠 폐기 마땅”

문병호, 동창회 분규 소송당사자로 ‘부적격’ 동문 개방이사, 모교발전기금 모범 보여야

총동창회 추천 몇의 학교법인동국대학(이하 법인) 개방이사 선임문제가 5차례나 유보되며 1년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1월12일 열린 총동창회 2017년 첫 상임위원회는 “법인 개방이사는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존경받는 인사로 선임하여 동국가족의 화합과 대학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동창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문병호의 개방이사 선임은 부적격 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개방이사 선임안 보류는 이연택 전 이사가 지난해 3월24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야기된 사안이다. 이연택 전 이사는 본인이 총동창회 추천을 받아 법인 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자리를 놓고 총동창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같은 이사인 김선근 이사를 통해 문병호 동문을 후보로 추천하면서 화근을 만들었다.

법인 이사회는 개방이사 선임안을 지난해 4월11일, 5월31일, 6월20일, 8월18일, 12월7일 상정했으나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동창회 등 대학 구성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 결정을 미

뤄온 상태이다.

일반 사회에서라면 보통 안건이 2~3회 정도 보류되면 폐기시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럼에도 개방이사 선임 건이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이연택 전 이사의 법인내 세력구축이라는 추측과 맞물려 있다. 개방이사 4명 가운데 안재란 이사를 제외한 2명이 이연택 전 이사의 친밀 협력 이사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번에 자신이 추천한 문병호까지 이사로 선임될 경우에는 법인이사회에서의 파벌적 영향력이 우려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이연택 전 이사는 자신의 후임 이사 선임을 위해 조계종 종무원에 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총동창회가 문병호를 반대한 이유는 첫째, “문병호는 “2015.5.28 개최되는 동창회 총회가 정당하다”는 2015.5.27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이를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당사자다. 더욱이 이 본안소송마저 패소(2015.9.17)하였음에도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 명예를 주락시키는 장본인이다. 사회적 시각으로는 소송당사자로서 재판이 진행중일 때는 관직 등의 임용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관례

가 되고 있다..

둘째, 문병호는 이연택 전 이사와 함께 총동창회 의결을 거쳐 ‘제명’ 된 자로 법인 정관에 정한 ‘재가불자로서 덕망있는 인사’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동문사회에서 제명된 이연택 전 이사가 본인과 함께

여 시행해 오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스님 이사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 의결을 원칙처럼 지키고 있는 반면에 개방이사들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동문사회의 여론은 “동문 이사로 참여했으면서 발전기금은 고사하고 이사회 회의비만 꼬박 챙겨가고 있어 솔직히 실망이 크고 망신스럽다”면서 “동문 이사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어느때보다 아쉽다”고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넷째는 문병호의 종교에 대해 확실한 검증이 없었다는 점이다. 법인은 대학이나 초중고의 교직원 채용시 불교신행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이 불교가 아닌 유력 타종교의 오랜 신자라는 점을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하다.

법인은 대학발전의 산실로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하는 모교의 최고기관이다. 그 구성이사는 누구보다 책임이 크다. 그 때문에 법인은 그동안 흔결이 없는 재가불자 동문 중에서 개방이사 4명을 선임해왔다.

총동창회의 이번 개방이사 선임안 반대 배경에는 동문 사회의 배척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선임될 경우에는 대학발전의 화합과 협력의 틀이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인 이사회는 1년여 동안 행정 낭비로 더 이상 모교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여론이 동문사회에는 이미 확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0 인 사 부	
결 정	
사 진	2015-12055586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 제소인	1. 정안식 2. 문병호 3. 이철 4. 박용재
원고를 주소	서울 종로 5가 569 (신당동) 세장빌딩 5층
원고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문성, 박수진,
원고를 소송대리인	동국대학교 충정 상회 사무처 석지승, 이상봉, 이은복, 조상연, 최병준, 허준, 최주영, 이병선, 정원경
피고, 피고소인	동국대학교 충정상회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7 (관훈동, 백상빌딩) 302호 대표자 최주영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장선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1 인 사 부	
판 결	
사 진	2015-기법536426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 고	1. 정안식 2. 문병호 3. 이철 4. 박용재
원고를 주소	서울 종로 5가 569, 5층(신당동, 세장빌딩)
원고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도희, 정수민, 김지혜 동국대학교 충정상회

제명된 문병호를 개방이사로 추천한 것 자체부터가 과행이다. 역대로 총동창회장이었던 고 최재구, 정재철, 황명수, 권노갑, 류주형, 전순표, 이연택 이사 등은 모두 총동창회에서 추천해 법인 이사로 참여했으나, 이연택 전 이사는 총동창회의 오랜 전통을 외면하며 편법을 자행했다.

셋째는 법인 이사의 경우, 학교 발전기금으로 매년 5천만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종립학교 관리위원회가 수년전에 의결하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삶

‘동국인의 밤’ 특별강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6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위협요인은 ‘기후변화 대응 실패’이다. 글로벌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5개의 리스크 중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3개가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나왔다. 이는 지구촌 모든 인류에게 던져진 공동의 숙제다.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4단계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18세기 말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은 수력 및 중기기관의 힘을 이용한 기계화로 시작되었고,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신시네티 도축장에서 최

초로 시행된 컨베이어 벨트에서 시작하여 전기동력에 의한 대량 생산체계를 가져왔다. 1970년대 3차 산업혁명은 전자기술과 IT를 통한 자동화의 진화로 시작되었고, 이어 등장하는 인공지능, 생명과학, 로봇기술 등으로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계의 ‘융합’을 통해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일명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라 불리운다.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 미래에는 빅데이터, 증강현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시스템 통합 등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기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의 혁명으로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폭넓게 그리고 깊게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규모로 파고가 넘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 있다. 웨어러블 단말기로 이상을 검진하여 집에서 병원과 다를 바 없는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고, 다수의 교통기관을 지연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도시의 안전한 자동운전을 지원하는 스마트 시티가 구현될 것이며, 또한 1인 1대의 단말기로 WiFi 연결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따른 최적의 학습도구를 개별적으로 제공받는 ICT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센서를 놓지나 가죽 등에 붙여 환경이나 생육에 따른 사람의 손이 필요 없는 스마트 팝이 실현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 사회에 맞는 ICT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과 실천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ICT 인프라를 보완, 정비하여 초대용량 네트워크 시대를 열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데이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이버 보안 대책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백 수 현 (한국표준협회 회장/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석좌교수)

이렇듯 편리한 기술혁신의 시대는 반대로 일부 전문가 시대의 종말을 야기할 것으로 예견된다. 로봇약사는 약국에서 200만 건의 처방을 실수 없이 조제가능하고, 병원 복도를 돌아다니며 봉대나 약품을 대량으로 옮기는 로봇 TUG는 현재 140여개 병원에서 간호사와 운반자를 대신해 매주 5만 건을 배달하고 있다. 또한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수퍼컴퓨터 왓슨은 최고위 임원에게 컨설팅을 하는가 하면, 법률 전문직 또한 예상치 못한 격변을 맞으리라는 시각이 많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물고 올 새로운 노동구조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로 삼아야 하며, 우리는 그간 통용된 전문직의 의미, 역할, 작업방식이 종체적으로 바뀌게 될 ‘전문가 이후 사회’에 혁명하게 대처해야만 하고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감성을 지니며, 인간다운 윤리의식을 갖춘 인간다운 교육이 더욱 절실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4】 2017년 1월 12일 (목)

전 면 광 고

제240호



三元艾特貿易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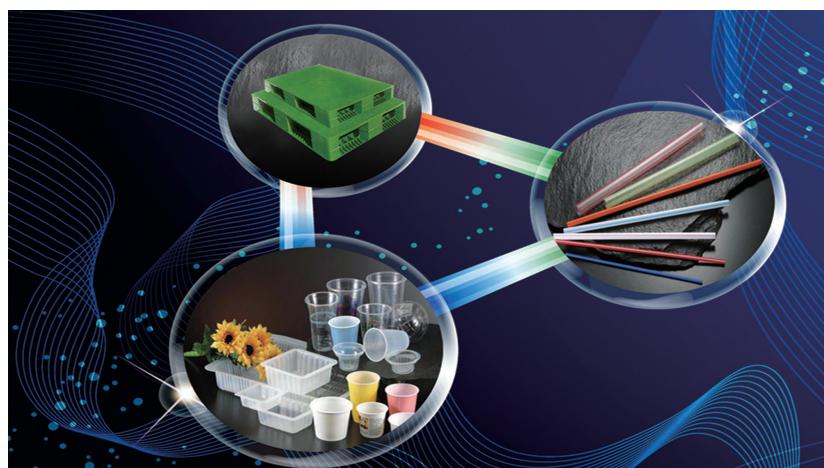
[전문점] 삼성전자(주) : 프린터용 정품 잉크 / 토너 카트리지

본사
 용산지점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8층 (방배동, 명림빌딩)
서울 용산구 원효로58길 15-15 (원효로2가)
TEL : 02-521-8857 / FAX : 02-719-2436
TEL : 02-701-8472 / FAX : 02-701-8462

代表理事 具允寬

상경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이 상 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상경빌딩 14층 Tel. 02) 557-4757 Fax. 02) 556-3866

대표이사 하만장
Mobile. 010.5251.3705



연희택시 주식회사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88 Tel. 02) 2685-2751 Fax. 02) 2683-4385

미래가치의 **主人**이 되십시오.

경제적인 부(富)를 이루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최고의 전통과 명문 프로그램!!

교육구성

구 분	내 용
교육기간	2017년 3월 14일 ~ 2017년 12월 19일
교육장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첨단강의실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18:30 ~ 21:30 1일 1 ~ 2강좌
교육내용	부동산의 개발 및 금융/자산의 운용 및 관리/투자, 재테크 및 사례연구 등

원서접수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2017년 3월 10일(금)까지 선착순 접수
서 류	입학지원서, 사진
접수방법	홈페이지 : http://www.dgureceo.com FAX : 02.2263.8576 이메일 : reaceo@dongguk.edu 우편 : 04620 서울시 종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5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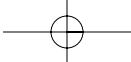
제 37 기

부동산 · 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DONGGUK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 행정대학원 · REACEO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TEL. 02.2260.8572 / 02.2260.8574 <http://www.dgureceo.com>



제240호

인 터 뷔

2017년 1월 12일 (목) [5]

■ '2016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수상자 전순표 동문

"환경위생 분야에서 세계 일등기업으로 우뚝 서겠다"



사진 | 뉴시스

온화하고 자애스런 모습이다. 조용한 말씨를 통해 인자한 인품이 그대로 우러난다. 학창시절과 공직생활, 기업인으로 활약해온 지난 삶을 설명하는 (주)세스코 회장 전순표(82세/53학번 농학과) 동문의 모습이다. 80객인데도 60대 초반쯤으로나 여겨질 정도로 건강미 넘치는 용모, 활력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전순표 회장이 동국대 총동창회가 제정한 '2016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앰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동국인의 밤'에서 수상패를 받았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 아래 불모지였던 국내 해충방제 분야를 평생 동안 개척해 환경위생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을 일궈온 기업가정신이 높이 평가되었고, 10억 여원의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모교에 기탁하였으며,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동창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영광의 대상을 수상했다.

전 회장이 1976년 설립한 (주)세스코는 생명, 화학, 전자, 기계, 소프트웨어 공학분야를 망라해 최고기술을 집적, 해충기술연구소와 식품안전연구소, 이물분석센터를 구축해놓고 있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이면서 해충방제사업을 펼고 있는 기업이다. 200명의 석박사급 연구진이 근무하고 있고, 국내지사 80개소, 해외지사 20개소와 4,000여 명의 서비스 컨설턴트가 네트워크를 갖춰 50만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세스코는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첨단 연구개발 시설과 축적된 노하우로 식약처 지정 HACCP 교육기관 및 시험분석 분야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교육, 분석, 컨설팅 등 종합 식품안전관리 사업을 수행중이다.

지난해 12월13일 오후5시 '동국인의 밤' 행사에 앞서 앰버서더호텔 커피숍에서 전 회장을 만났다.

- '자랑스러운 동국인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소감부 터 한 말씀 주십시오.

"총동창회에서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학사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를 모두 동국대학에서 받은 순수한 동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 기업인 · 공직자 · 학자로서의 성공은

동국대학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동국인 대상 수상이 후배들에게 꿈을 꾸면서 끈기있게 노력하면 뜻을 이룬다는 귀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순표 회장 하면 쥐박사로 통하는데 쥐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강원도 정선에서 5남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공무원이었던 부친은 교육열이 높아 넉넉지 않던 살림인데도 5형제 모두 대학에 보냈다. 나도 동국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농업시험장(농촌진흥원 전신)을 거쳐 농림부 농산국 농산과 재해대책과에서 쥐잡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농촌 출장을 가서 정부 양곡창고를 들러볼 때 올화가 터졌다. 양곡창고는 말 그대로 쥐들의 세상이어서 양곡의 절반 가량이 쥐먹이로 사라졌다. 식량자급이 안되고 쌀 한 틲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한 증산시책이 강도높게 펼쳐지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 쥐만 살찌게 하는 셈이 됐다. 쥐 피해가 그렇게 심해도 창고관리자가 눈만 감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대책이 없이 그냥 넘어갔다. 식량증산보다 쥐잡는 일이 더 급하다고 판단하고 쥐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했으나 문헌이나 자료가 없어서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었다. 마침 영국정부가 '곡물저장에 관한연구'를 할 장학생을 뽑는 기회가 찾아왔다. 시험에 응시해 선발되어 2년간 영국정부 및 런던대학에서 유학을하게 되었다."

영국에서의 공부는 주로 쥐와 각종 해충의 생태와 방제법에 대한 연구와 실습이었다."

학사 · 석사 · 박사 모두 '동국'에서 친동생과 사위 등 동국가족 10여명 모교 – 총동창회 발전에 앞장서와

-쥐잡기 날을 정하기도 하셨죠?

"1964년 귀국한 내가 맨먼저 한 일은 정부에 쥐잡기날 선정을 건의한 것이었다. 무상 쥐약을 나누어주기 위한 예산을 얻어내기 위해 당시 경제기획원 문턱이 닮도록 드나들었다. 결국 영국에서 들여온 쥐약(항혈액응고제)을 농가에 나누어주기로 했다. 이 쥐약은 쥐가 3~4일 계속 먹어야 만 죽게 되어있는 치효성약으로 쥐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죽는 인도적인 약이었다. 한 농가에 1,000g 정도는 지급해야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200g를 지급했다. 결과는 당연히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문에 당시 장관이 국회에 나가 우리 연구원이 영국에서 가져온 새로운 약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듣지 않은 것 같다며 해명을 해야 했다. 그 당시 '쥐잡기의 날'의 실적을 알기 위하여 쥐꼬리 모으기 운동도 실시하기도 했다."

- 우리나라 유일의 쥐박사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1973년 모교에서 '한국산 집쥐의 생태 및 방제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쥐방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나 밖에 없다. 공무원 박봉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다 보니 결혼반지를 팔아야했고 가족들이 끼니를 걱정할 때도 있었다. 아

내(김귀자씨)가 피아노 레슨을 해서 꾸려나갔다. 공직생활은 승진을 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관계없는 부서로 옮겨다녀야했다. 과장으로 발령난 곳이 경제과장이었다. 쥐잡기와 관계없는 부서였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공무원으로서 계속하느냐 학교에 후배양성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기술을 살려 쥐잡기회사를 창업하느냐 세 갈레 길에서 헤매었다."

1964년 '쥐잡기의 날' 선정 건의 석 · 박사 급 연구진만 2백명 근무 세계 최고 수준 R&D 시설 자랑

-사업을 벌이신 계기는요?

"그 당시만 해도 쥐의 피해는 농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확산되고 있었다. 쥐 전문가로서 이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의 지식을 이용해 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돋는 길이다라는 생각 끝에 관직(서기관)을 사직하고, 1976년 영국에서 보아왔던 쥐 방제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회사 이름은 전우방제(세스코 전신)로 하고 7평 사무실에 집사람과 직원 하나를 데리고 총 3명이 회사를 열었다. 그 당시 용역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시대라 쥐잡아주고 돈 받는 회사란 아주 낯설고 우스운 회사, 미친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모두 비웃을 때였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끈기있게 버텼다 이 끈기는 우리집의 가훈이기도 하다."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환경과 위생이 중시되면서 세스코의 사업영역이 확장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리어카에 쥐약을싣고 다니며 팔던 시대는 가고 대형공장, 아파트, 호텔, 백화점, 병원, 식당, 물류센터 등에서 쥐는 물론 여러 가지 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이 요구된 환경위생 중심세상이 온 것이다. 어느새 사세는 늘어나고 2014년 서울 강동구에 세스코 터치센터라는 대형빌딩을 지어 해충방제기술연구소, 식품안전연구소, 이물질분석센터 등 세계최고 수준의 R&D 시설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쥐잡는 것으로 시작해 해충방제, 유해세균과 식품안전까지 영역을 확장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환경 위생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된다. 여기까지 온 것은 끊임없는 연구정신과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가 바탕이 되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위생 분야에 선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충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의 유해세균에 대한 꾸준한 연구개발과 첨단해결책으로 세계적 일등 전문기업으로 우뚝 서는 것이 목표다."

전 회장은 부인 김귀자 여사(75세)와 함께 2남1녀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다. ROTC 2기회장을 지낸 전진표(60학번 임학과) 동문이 친동생인 동국가족이기도 하다.

이 계 흥 <총동창회 홍보분과위원장>



【6】 2017년 1월 12일 (목)

동국인의 밤

제240호

‘2016 동국인의 밤’... “정말 멋지고 격조 높았다”



“우리 고향중의 고향이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떼처럼 동국가족 600여명이 구립13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2016 동국인의 밤’에 함께 모였다.

이날 행사는 송석구(전 모교 총장), 원용선(전 총동창회장), 김희형, 심경모, 임덕규, 조희영, 송석환 고문과 모교 한보광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전국 각지의 각계 각종 동문들이 두루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행사장 입구에 도열한 전영화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상임부회장단의 영접을 받으며 반기운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자광 이사장 스님은 신병치료 때문에 불참, 행운상품만 보내왔다.

행사는 1부 특별강연, 2부 동국인상 시상 및 장학금 수여식, 3부 작은 음악회와 행운권 추첨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

이날 영예로운 ‘2016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은 전순표(53/57농학, (주) 세스코



대상 전순표



특별상 노용영



연예인상 강석우

런트 강석우(77/81연영)동문이 받았다.

강석우 동문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15년 9월부터 CBS 음악FM 클래식 프로그램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순금제 행운의 열쇠를 선물했다.

국가고시 특별장학금 수여

KBS 아나운서부장 한상권(89/93경영)동문과 만능 엔터테이너 차연신(85/89연영)동문 사회로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에 이어 2016 국가고시 특별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국가고시 특별장학금은 KCC 명예회장 정상영(57/61법학) 본회 고문이 1억원을 쾌척해 사법고시 4명, 행정고시 6명, 변리사 1명 등 총 11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각 5백만원씩을 수여하고, 나머지는 고시반 지원비로 한보광 총장에게 기탁했다.

이건 뭐지?

BiteCradle Mini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QuadPole Mini



투
힘

대량구매 할인 (고객선물용)
☎ 031.309.0878

주식회사 투힘

www.twohim.com

NAVER

투힘

검색

www.twohim.com

동국인상 시상 · 고시합격자 특별격려 · 작은 음악회 등

특별강연 - '4차산업혁명과...'

정환민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 강연은 모교 석좌교수이자 한국표준협회 회장인 백수현 박사를 초청해 '4차산업혁명과 인간의 삶-스마트시티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백수현 박사는 특강에서 "기술혁명이 물고 올 '인간 전문가 시대'의 종말은 새로운 노동구조의 위기와 기회라는 양면성이 있다"면서 "글로벌 표준 제정 과정을 보면 시장과 고객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수현 박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 기술과 인재의 요건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기술의 융·복합화와 초 연결에 따르는 스마트시대는 멀지 않은 장래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한편으로 향후 2~30년의 키워드는 지역별 인구와 물, 식량, 그리고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장 "명문 사학 위상 드높이자"

이날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동국이라는 산과 숲이 활력을 되찾아 명문사학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협력과 후원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동창회관 건립 조속 가시화와 상식적인 모교법인 개방이사 선임 등을 통해 동문들의 자부심과 모교의 명성이 빛나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韓 총장 "동국발전 최선을 다하겠다"

모교 총장 한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내년에는 충분한 재원 확보와 이에 따른 과감한 투자,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동국 발전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은 음악회 - 동문들 재능 기부

제3부 작은 음악회는 차연신 동문의 사회로 △소프라노 정이안(86학번)동문이 'Nella Fantasia' 뼈무애 men vo'를 △뮤지컬 배우 이광용(09 영상대학원)동문은 '너의 꿈속에' '이룰 수 없는 꿈'을 △탤런트 이재욱(94연영)동문은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동역'을 △연극배우 김세이(98연영)동문은 '천년지기' '걱정말아요 그대'를 각각 열창하여 장내 분위기를 들썩이게 했다.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이들의 공연은 연회 분위기의 하이라이트를 이뤘다.

"혹시 내 번호가..." 기대 잔뜩

행운권 추첨은 총동창회장, 모교법인 이사장, 모교 총장, 경주캠퍼스 총장 등이 대형 TV 1대씩을 협찬한 가운데 조국형(58 정치), 윤재웅(81국문), 이덕일(92불교대학원), 손영락(92행정대학원) 동문이 각각 당첨의 행운을 안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부산동창회장 박진호(65경영, 동부산대 명예교수)동문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은 "정말 멋지고 격조 높은 행사였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동창회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번 '2016 동국인의 밤'의 동국인 대상 수여 소식은 조선·동아·문화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소개되어 모교 홍보에도 기여했다.



▲ 전영화 회장(왼쪽)이 전순표 CESCO 회장 부부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 한보광 총장 스님(오른쪽)에게 국가고시반 특별장학금 1억원이 전달되었다.



▲ 각종 고시 합격자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수여됐다.

www.kc-enviro.com

KC환경서비스(주)

창원사업부

대표이사 이 강 육 (경영학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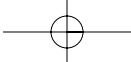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6길 103 (봉암동)
Tel. 055) 251-7272, 292-4510
Fax. 055) 293-5104
Mobile. 010-3714-6107
E-mail. kwlee@kc-enviro.com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dongguk UNIVERSITY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고양시골프협회 회장 김 석 연 (체육교육과 78卒)



[8] 2017년 1월 12일 (목)

단위동창회

제240호

“거룩한 삼보의 언덕위에 한줄기 눈부신 동국의 빛”

여자총동창회 | 회장에 김애주 교수



여자총동창회 신임 회장에 김애주(76영문, 모교 영문과 교수, 사진) 동문이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다.

여종은 구립19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전영화 총동창회장을 비롯 김인순(57국문) 원로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갖고 김영순(65화학, 모교 명예교수) 회장 이임식과 김애주 신임 회장 취임식을 차례로 진행했다. 안영숙(82연경) 사무국장 사회로 지난 6년간 여자동창회를 이끌어온 김영순 회장과 송경옥 사무국장에 대한 감사장 수여가 있었으며, 세미나사업보고(황윤정 위원장), 재무보고(조미옥 위원장), 장학보고(김태현 위원장), 흥보활동보고(사기순 위원장) 등을 가졌다.

ROTC총동문회 | 24대 김병대 회장 취임



ROTC총동문회(회장=김환진) 정기총회 겸 신·구 회장 이·취임식이 1기 원용선 고문, 전영화 총동창회장(7기), 이종희 학생군사교육단장을 비롯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립7일 국방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신임(24대) 회장에 취임한 김병대(19기), 77행정, 코리아RB증권 전무이사, 사진)동문은 “112 ROTC의 명예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더욱 활기차고 미래가 있는 동창회로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인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24기 임관30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려 선후배들의 축하를 받았다.

4.19혁명동지회 | 정기총회 겸 송년회



4.19혁명동지회(회장=라동영, 59불교, 전 경기대 겸임교수) 정기총회 겸 송년회가 원용선 전 총동창회장과 전영화 총동창회장, 김성재(58정치) 4.19혁명공로자회 고문을 비롯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립 27일 정오 서울 종로3가 한일장에서 열렸다.

이채옥(60정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기의 업무보고 및 회계 등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동국대라이온스클럽 | 다문화가족 사랑나눔



동국대라이온스클럽(회장=홍종표, 94행원, 대원인터넷내셔널 대표)은 구립 19일 오후 6시30분 신길1동 주민센터에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사랑나눔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세제, 비누, 필기용품 등 생활필수품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 이날 행사에는 홍종표 회장을 비롯해 윤석칠 자문위원장, 이필종 제1부회장, 이용준 재무 등과 영등포구복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광주전남동문회 |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광주전남동문회(회장=박태현, 66경영, 시온문화사 대표) 창립 60주년기념 동국인의 밤 행사가 구립12일 백운동 프라도호텔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박지우(75정외) 사무국장 사회로 회장 인사, 최성호(전 광주교육대 총장) 원로 동문 축사, 기념품 전달, 여흥 순서로 진행됐다.

광주전남동문회는 60주년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동국인의 밭자취’ 화보집과 동국인 수첩을 발간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대구광역시동문회 | 신임회장 손기범 동문



대구동문회(회장=손창수, 81한의, 손한의원장)는 이대원 경주캠퍼스 총장과 김상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초청한 가운데 구립 19일 수성동 만반음식점에서 회원들과 송년간담회를 열었다.

한편 대구동문회는 신임회장에 손기범(91행원, 동부하병원 상임고문, 사진)동문을 선출하고 1월부터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인천광역시동문회 | 임시총회 겸 송년회

인천동문회(회장=이한섭, 71/75경행, 전 인천 중부경찰서장) 임시총회 겸 송년회가 최종협 명예회장, 윤종기 전 인천경찰청장 등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21일 원인제역 4거리 ‘우리가본집’ 음식점에서 열렸다.

충북동문회 | 충북-청주동문회 통합 논의

충북동문회(회장=김사성, 69국어교육, 前 충북여중 교장) 정기총회 겸 송년회가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립 6일 청주시내 천일식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부터 회원이 서로 중복되고 있는 충북동문회와 청주동문회의 통합 운영인을 논의한뒤 회원간 안부와 정답으로 선후배간 우의를 다졌다.

남가주동문회 | 송년의 밤 행사



남가주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가 구립 8일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본회 이민희 상임고문 등 원로 동문들과 회원 80여명이 가운데 열려 덕담과 격려로 선후배간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이날 모임에서는 신임회장으로 강병선 동문을 선출했으며 신년도 조직 활성화 방안 등 주요사업계획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서울 강남동문회 | 회장에 정시환 동문



서울 강남동문회(회장=남궁철, 81회)는 구립 22일 양재동 강릉집에서 총회 및 송년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정시환(87법학, 변리사)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이학균(77사회교육) 전 회장이 애장품을, 임세득(77토목) 동문은 파리바게트를 케익을 협찬해 참석동문들의 따뜻한 연말을 응원했다.

고양시동문회 | 정기모임 정착화 총력



고양시동문회(회장=길종성, 80국사, 국민의당 고양시정지구당 위원장, 사진 오른쪽)는 구립13일 이현중(김병호 등 역대회장을 비롯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엽동 취옹중국집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길 회장은 7대회장 백기범, 사무국장 배향식(82경제, 경영컴포넌트) 동문에게 고양시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기려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신년도 중점사업으로는 동문찾기와 정기 모임 정착화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성남시동문회 | 신년 활동계획 논의



성남시동문회(회장=고용규, 70정외, (주)동우들 대표 이사)는 구립 22일 송년회 겸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에는 모교발전을 위한 행사와 주요활동계획, 봉사활동, 각 소모임 활성화 등에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동대신문사동인회 | 신임회장에 백광열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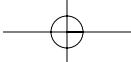


동대신문사동인회(회장=정희성, 79국문, 시인)는 윤정광(59영문,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장) 원로 선배를 비롯 회원 및 재학생 기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립15일 총무로 아리랑가든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신임 회장에는 백광열(80농경, 전기공업신문사 발행인, 사진) 동문을 선출했다.

국문·문창학부 | 70주년 기념전시회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창과 70주년기념 전시회가 지난해 10월12일부터 1주일간 중앙도서관 2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석전 박한영, 퇴경 권상로, 만해 한용운, 무애 양주동, 신석정, 김달진, 서정주, 조지훈, 조연현, 이범선, 유현복(영화감독), 이병주, 이동림, 정익섭, 김기동, 이형기, 김장호, 이종찬, 김영배, 현평효, 흥기삼, 조정래, 문정희, 김문수, 문효자, 홍신선, 정채봉 등 근현대 문학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선배 문인과 국학 연구에 헌신한 스승들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마련했다. 주요 전시물로는 만해 한용운의 휘호가 담긴 10폭 병풍 '십우승' 복각본과 무애 양주동의 '고가연구' 초판, 미당 서정주의 휘호, 조동탁의 '조지훈 시선' 초판본 등의 기념물과 도서 등을 선보였다.



제240호

단위동창회

2017년 1월 12일 (목) [9]

큰 광명 큰 지혜 큰 힘으로..." 전국 곳곳 교가 울려 퍼져

불교학과동창회 | '명예로운 동문상' 시상



홍영준 동문



김형중 동문

불교학과동창회 (회장=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홍영준(61학번, 前 SK에너지 사장), 김형중(79학번, 동대부여중 교장) 두 동문을 '2016 명예로운 동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구립 15일 충무로 대림정에서 열린 '학과 창설 110주년 동문 송년의 밤 및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을 김용표 회장을 유임시키고 결산보고, 신년 사업계획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영어영문학과동창회 | 1월 중 신년하례회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윤명금, 77학번, 컨설팅 대표) 송년회가 박영민(49학번), 심경모(57학번), 원용선(59학번) 등 원로 동문과 재직교수,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립 14일 모교 상록원 교직원식당에서 열렸다.

한편 1월 중순에는 연례행사인 신년하례식을 갖고 선후배간 우의와 학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높히게 된다.

생물학과동창회 |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

생물학과동창회(회장=홍성우, 79학번, 흑주 대표)는 구립 19일 마포가든호텔에서 송년회를 겸해 후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장학금은 재학생 2명에게 각 1백만원씩 지급됐다.

이날 이민웅(60학번, 모교 명예교수) 동문은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약정했다. 총 장학기금은 7천여만에 이르고 있다.

경제학과동창회 | 70주년 행사 준비사항 보고



경제학과동창회(회장=송일호, 78/82, 모교 교수) '2016 총회 겸 송년회'가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을지로 1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송 회장은 전영화 총동창회장에게 '2016 동국인의 밤' 협찬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오수환 사무국장(82학번)이 △경제학과 연혁 △동문 활동 △최근 활동 내용 △2017년 학과 70주년 행사 준비사항 등을 보고한데 이어, 신관호(69학번) 전임 사무국장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한편 최근 행정고시에 합격한 기만철(05학번) 동문을 자랑스러운 경제인으로 축하하는 순서를 가졌다.

불교대학원동창회 | 임원갑 회장 연임



불교대학원동창회(회장=임원갑, 상운기공(주) 대표이사) 임시총회 겸 송년법회가 구립 8일 오흥근 이영자 서윤길 등 역대 원장과 정인악 김성호 문황진 법해스님 진우스님 등 역대 동창회장을 비롯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 르와지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임원갑 회장의 18대 회장 연임안을 승인하였으며, 여홍과 장기자랑으로 회원간 친목을 도모했다.

불교문화대학원총동문회 | 장학금 3천만원 전달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회장=보당스님)는 구립 13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불기 2560년 동국인의 밤' 행사에서 '참사람 양성 발전기금' 3000만원을 경주캠퍼스에 전달했다.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와 총동문회 스님들의 모임인 총동립동문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모교의 발전과 친목 도모를 위해 해마다 개최해오고 있다.

장학금은 총동문회장 보당스님, 총동립동문회장 광진스님, 김광호 부산불교문화원장이 각각 1,000만원씩 출연했다.

사회과학대학원총동창회 | 정기총회 개최



사회과학대학원총동창회(회장=김석만, (주)신한 회장)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구립 26일 경주코오롱호텔에서 이대원 경주캠퍼스 총장, 박경일 사회과학대학원장, 이상록 경주지할동창회장 등 내외규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총회는 김남인 부회장 사회로 결산보고 등에 이어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강삼준(35기) 임창국(45기) 박상철(49기) 김남인(51기) 김덕환(53기) 동문에게 전영화 총동창회장의 공로패를, 정종섭(24기) 이상진(42기) 이상표(49기) 김남이(53기) 김대원(54기) 동문에게는 김석만 회장의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사회과학대학원 울산동문회 29대 회장에 취임한 이정협(36기) 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언론정보대학원동문회 | 언론인상 김상우 동문



언론정보대학원동문회(회장=김홍기, 94신문방송, 한국사보협회 회장, 사진 오른쪽)는 올해의 동국언론인상 수상자로 김상우(98신문방송, jtbc 행정국장) 동문을 선정, 구립 8일 송년의 밤 행사에서 시상했다.

수상자 김성우 동문은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jtbc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또 손종관(94출판잡지, 메디컬옵저버 편집국장)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여했다.

81학번동기회 | 모교 홍보대사 금반지 선물



81학번동기회(회장 이재국, 81/87건축, 서일대 교수)는 구립 23일 모교 본관 로터리홀에서 진행된 동국홍보대사 '동감 10기' 수료식에 참석, 후배들에게 기념금반지를 선물하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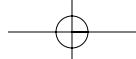
이날 수료식에는 이재국 회장과 김태형 사무국장, 조종미 재무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84학번동기회 | 신임회장에 이충주 동문



84학번동기회(회장=최준호, 교육, (주)PD그룹 대표이사) 총회 및 송년회가 구립 10일 모교 상록원에서 100여 명의 동창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총회에서는 2017년도 회장으로 이충주(체교, 하나제약(주) 이사, 사진) 동문을 선출하고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84학번동기회는 후배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모교측에 전달했다.



【10】 2017년 1월 12일 (목)

동문동정

제240호



박경민 치안정감



남택화 치안감



박건찬 치안감



민갑룡 치안감



윤명성 경무관



윤소식 경무관



이문수 경무관



조용식 경무관

치안정감 1·치안감 3·경무관 4명 승진

지난해 연말 경찰청 고위직 인사에서 동문들이 크게 약진했다.

11월28일 단행된 치안정감 및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 박경민(08/10대학원 박사)동문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인천지방

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치안정감은 13만 경찰가운데 6자리 밖에 없는 고위직이다.

남택화(79/83경행, 경찰청 교통국장), 박건찬(대학원 박사과정, 경찰청 경비국

장), 민갑룡(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동문은 치안감으로 각각 승진했다.

치안감인 이재열(79/86경행)동문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강성복(77/84경행)동문은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조현배(07/12대학원 박사)동문은 경찰청 기획

조정관으로, 박진우(대학원 박사과정)동문은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옮겼다.

12월5일 발표된 경무관 전보 및 승진에서는 10명이 인사이동되었으며, 4명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12월15일자로 발령된 총경급은 10명이 승진하고, 25명이 전보되었다.

■ 경무관(승진)

- △윤명성(03/12대학원 박사) = 광주지방경찰청 제2부장
- △윤소식(행원 최고위과정) = 충북청 청주흥덕경찰서장
- △이문수(80/84경행) = 경기남부청 부천원미경찰서장
- △조용식(82/86경행) =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김선섭(87/94경행) = 대구지방청 치안지도관

- △김택수(87/94경행) = 강원지방청 정보과장
- △모상묘(85/92경행)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박주현(89/96경행) = 서울지방청 치안지도
- △박준성(88/95경행) = 서울지방청 치안지도관
- △신현규(79/86역사교육) = 서울지방청 치안지도관
- △임실기(85/90경행) = 인천지방청 치안지도관
- △장원석(86/93경행) = 제주지방청 보안과장
- △주진우(14경찰사법대학원) = 대전지방청 경비교통과장

△류재화(79/85경행) = 충북 옥천서장

- △박기태(대학원박사과정) = 경찰청 국제협력과장
- △박우현(대학원 박사과정) = 서울 수서서장
- △박지영(대학원 박사) = 서울 양천서장
- △박형길(81/88경행) = 경찰청 정보4과장
- △손호중(행원) = 강원지방청 보안과장
- △오상택(85/92경행) = 경기남부청 청문감사담당관
- △윤동준(80/84국문) = 경찰청 경무담당관
- △윤창수(76/83경행) = 경남지방청 보안과장
- △이범규(79/86경행) = 서울지방청 국회경비대장
- △이지준(84/92경행) = 서울 관악서장
- △이호영(85/92경행) =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 △전병용(77/84경행) = 충북 제천서장
- △최보현(92/96경행) = 제주지방청 수사1과장
- △최성영(83/90경행) = 경기북부청 구리경찰서장
- △한종욱(대학원 박사) = 경찰청 외사기획과장

■ 경무관(전보)

- △김병구(09/11대학원 박사수료) =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 △김해경(대학원 박사) = 경기남부청 분당경찰서장
- △유현철(78/82경행) = 경찰청 대변인
- △이상로(82/89경행) =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 △이은정(84/88경행) = 충남지방경찰청 제2부장
- △전창학(79/83경행) = 부산지방경찰청 제3부장
- △진정무(07/11대학원 박사수료) = 충북경찰청 제1부장
- △최해영(79/83경행) = 경찰청(국무조정실 파견)
- △하상구(08/12대학원 박사수료) = 경기남부 제3부장
- △현재섭(17/대학원 박사과정) = 울산지방경찰청 제2부장

■총경 전보

- △강신걸(81/87경행) =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 △곽순기(대학원 박사과정) = 서울지방청 생활질서과장
- △김광호(07/10행원)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 △김병기(88/95경행) =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 △김상우(82/89경행) = 서울지방청 보안2과장
- △김성권(76/83경행) = 경기북부청 청문감사담당관
- △김성근(77/84경행) = 강원 인제서장
- △김소년(84/91경행) = 서울 구로서장 / 경찰행정 84
- △김주원(84/91경행) =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김인창(97/00경주법학) =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

일간지 신춘문예 6명 당선

매년 文才 배출하며 문학전통 이어가



염승숙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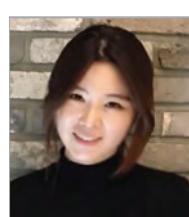
위수정 동문



조현주 동문



이가은 동문



최현진 동문



김서연 동문

올해 신춘문예에 동문 6명이 당선, 동국문학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1월1, 2일 발표된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자는 △경향신문 평론부문 염승숙(문예창작 01) △동아일보 중편소설부문 위수정(문예창작 99) △서울신문 희곡부문 조현주(문예창작 97) △중앙일보 시조부문 이가은(문예창작 02) △한국일보 동화부문 최현진(문예창작 09) △경남신문 소설부문 김서연(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08) 동문 등이다.

2016년 문학동네 신인상에서 소설부문을 수상한 박상영 동문을 비롯해 여러 신인상 수상자도 배출했다.

모교는 매년 신춘문예마다 뛰어난 문재(文才)들을 배출해 내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문학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신춘문예에서 총 8명의 당선자를 배출

한 바 있으며 2010년 3명, 2011년 4명, 2012년 4명, 2013년 6명, 2014년 4명(중앙일보 신인문학상 포함), 2015년 9명의 동문이 등단했다.

뮤지컬 '스타라이트' 관람

동국문화예술의 밤 첫 행사

총동창회 후원 '2017 동국문화예술의 밤' 첫 행사로 전영화 회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4일 밤 8시 대학로 도향아트홀에서 뮤지컬 '스타라이트(Starlight)'를 단체관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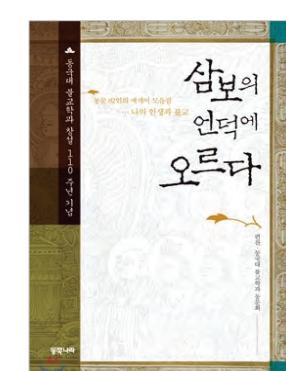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스타라이트'를 제작한 김면수(79/83행정, MS뮤지컬컴퍼니 대표이사)동문의 특별초청으로 이루어졌다.

행事에는 총동창회 임원과 79,81,82,83, 84,85,86학번 등이 골고루 참여해 김면수 동문의 영접을 받으며 상호 덕담과 꽃다발 증정, 기념촬영, 공연 관람 순서를 가졌다.

한편 공연관람 동문을 위한 저녁공연은 김진수(78/85행정, 창명기업 대표이사) 동문이 제공했었다.

불교학과 동문 82인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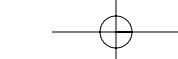
'삼보에 언덕에 오르다' 발간



불교학과
동문회(회장
=김용표)가
창설 110주
년 기념으로
동문82인의
에세이 모음
집 '삼보의
언덕에
오르다'

다-나의 삶과 불교'를 펴냈다.

에세이집은 △1부 불교학과, 겨레의 열을 세우는 기둥이 되다(명진학교에서 혜화전문학교까지) △2부 불교학과, 한국불교의 핵심을 이루다(동국대학교에서 동국대학교까지) △3부 불교학과, 세계불교학의 중심이 되다(동국대학교 그리고 오늘)로 구분하여 1908년 명진학교 1회 졸업생 만해한용운부터 2016년 졸업한 새내기 동문까지 11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동문들의 진솔한 신앙고백과 불교관을 담고 있다.



제240호

동문동정

2017년 1월 12일 (목) [11]

4.19혁명동지회에 1억원 기탁



김성재(58/63정치, 경주중앙청과(주) 회장, 4.19혁명공로자회 고문)동문이 구립 29일 4.19혁명공로자회 송년회에서 '보상금 인상 및 예우 관계 개선' 등 4.19 혁명정신 계승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유인학(86/94대학원) 회장에게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이계문(80/84공경)동문이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으로 영전했다. 행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주타이왕국대사관 1등 서기관, 기재부 기획재정담당관,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 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KB국민은행 부행장



허정수(80/84경제) 동문이 구립 28일 KB금융지주 전무에서 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국민은행 호남본부장과 상무, KB손해보험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KEB하나은행 부행장



정정희(80/85영문) 동문이 구립 28일 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 부행장으로 영전했다. KEB중국유한공사 법인장, 해외사업그룹 전무, 통합 KEB하나은행 여신그룹 전무를 맡았다.

NH농협은행 부행장보



김철준(78/82회계)동문이 농협은행 부행장보로 구립 9일 발령받았다.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빠가 굵었으며, 법무법인 광장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박태선(82/89농학)동문이 구립 9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으로 승진했다. 1989년 입사해 중앙본부 상호금융기획부 팀장, 서울영업본부 남영동지점장, 전남영업본부 해남군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NH농협은행 전남지역영업본부장



유해근(05경영전문대학원)동문이 농협은행 전남지역영업본부장에 구립 9일 승진했다. 1982년 입사해 광주첨단지점장, 동광주지점장, 신목포지점장,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광희(81/84전자계산)동문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신임 이사장으로 지난해 11월7일 취임했다.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실장, JDC 개발본부장 및 부이사장,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총동창회, 동창회관 건립기금 3억원 전달
교육 · 연구인프라의 대혁신 실현 다짐

▲ 동창회관 건립기금 3억원을 전영화 회장과 조충미, 윤병관 상임부회장(오른쪽부터)이 한보광 모교 총장에게 전달했다.

모교 개교 110주년을 기념하고 2020년 비전을 공유하는 '동국대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해 11월10일 행사 당일에 발전기

금 100억원을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다. 올해 23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자리에서 전영화 총동창회장과 조충미 (81학번), 윤병관(82학번) 상임부회장은 동창회관 건립기금 추가분으로 현금 3억원을 한

보광 모교총장에게 기탁했다. 모교는 이날 행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캠퍼스 재창조, 세계수준의 웅·복합교

종로서적판매 설립



서분도(82/88국민윤리, 전 영풍문고 전무 이사)동문이 종로서적판매(주)를 설립하고 종각역 종로타워 지하 옛 반디리우스 자리에 종로서적을 열었다. 매장면적 300평 정도의 중대형서점으로 6만종 10만권의 책을 갖췄다

KBC 광주방송 편성제작국장



임채영(85연영) 동문이 구립 26일 KBC 광주방송 편성제작국 제작부장에서 편성제작국장으로 승진했다.

경북지방우정청장



이정구(79/86국사교육)동문이 지난해 10월31일 경북지방우정청장(58·사진)에 취임했다. 행정고시(35회)로 공직을 시작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담당관 및 중앙전파관리소장,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대년(행원) 동문이 지난해 11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올해 실시 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과 선거연수원장, 관리국장(현 선거국장), 기획관리실장, 사무차장 등을 거쳤다.

BGF포스트 대표



전태진(79/83도시행정) 동문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계열사인 BGF포스트 대표에 취임했다. 삼성에버랜드 기획조정실, CVSnet 대표를 역임했다.

베링거인겔하임 전무



박명철(92/99화학)동문이 지난해 10월17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마케팅 전무에 선임됐다. 한국얀센의 영업으로 제약업계에 첫 발을 디은뒤 한국과 대만 지사의 통증 및 항암제 의약품 사업부의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했다.

주택건설협회 경북 회장



성기호(99/0안전공학, 포항 금성주택 대표이사)동문이 경북도내 305개 회원사로 구성된 대한주택건설협회 산하 경북도 주택건설협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추대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 · 울릉지사장



권진식(85/92회계)동문이 1월2일 한국농어촌공사 포항 · 울릉지사장으로 취임했다. 1992년 입사해 기획조정실 예산부장을 비롯해 농지은행처 농지기획부장, 경영지원처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준교수팀 123억 수주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선정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부 이재준교수 연구팀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5년간 매년 24억7000만원씩 총 123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 분야의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및 기후산업시장 창출과 기후기술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연구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이재준 교수의 총괄 책임하에 고려대, 울산과기원(UNIST), 한국기계연구원(KIMM),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세부과제를 담당한다. 또 경상대와 국민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한양대, 주나노엠, 일본국립재료연구소(NIMS), 호주연방과학기술원(CSIRO)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대형 연구 캠퍼스이다.

'개교110주년 후원의 밤' 당일 100억 유치

총동창회, 동창회관 건립기금 3억원 전달
교육 · 연구인프라의 대혁신 실현 다짐

▲ 동창회관 건립기금 3억원을 전영화 회장과 조충미, 윤병관 상임부회장(오른쪽부터)이 한보광 모교 총장에게 전달했다.

모교 개교 110주년을 기념하고 2020년 비전을 공유하는 '동국대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해 11월10일 행사 당일에 발전기

금 100억원을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다. 올해 23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자리에서 전영화 총동창회장과 조충미 (81학번), 윤병관(82학번) 상임부회장은 동창회관 건립기금 추가분으로 현금 3억원을 한

보광 모교총장에게 기탁했다. 모교는 이날 행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캠퍼스 재창조, 세계수준의 웅·복합교

요즘 잘 나가는 저 선배
도대체
비결이 뭐야?

삼성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는
삼성그룹 소셜 미디어!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삼성블로그
blog.samsung.com

삼성페이스북
www.facebook.com/samsung

삼성캐스트
www.samsung.co.kr/samsungcast

삼성 카카오 플러스친구
카카오 플러스친구>검색>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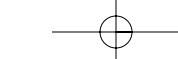
SAMSUNG

섬들의 고향 신안!
당신을 초대합니다

岛屿的故乡，新安！邀请您 新安！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환상의 섬! 흥도

국민의 소금 신안 천일염



제240호

전 면 광 고

2017년 1월 12일 (목) [13]

謹賀新年
www.kps.co.kr

정부 3.0
3년의 약속
30년의 성장
정책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2017년 희망 대한민국!

2017년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활기차고,
국민이 더 편안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한전KPS!



한전KPS주식회사

한전KPS가 하는 일 · 발전 설비(원자력, 화력, 수력) 정비 · 송변전 설비 정비 · 민간산업 설비 정비 · 특화기술서비스 · 해외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 신재생에너지

ISO 9001
ISO 14001
CRS
CRS
ISO 18001
여행조언서비스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Samkoo

자리의 가치를 아는 기업
업무보다 사람의 가치/가족 중한 기업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기업

P.M(Property Management) : 임대차 관리, 투자 관리, 부동산 자산 평가
F.M(Facility Management) : 미화, 시설 관리, 조경, 엔진, 안내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 생산, 제조, 유통, 공정 기내식, 조리 보조, 사무 관리원, 판매, 단체 급식, 구내 식당 운영
GLOBAL BUSINESS : 고배송(해외 직구 배송 대행 - 미국 뉴저지, 멜라웨이)
SECURITY : 경비원 선임 교육, 공항 경비, 특수 경비, 시설 경비
C.L.(Contract Logistics) : 공급망 관리, 물류 물류, 청고 관리
Silver Care Service : 노인 요양, 재가, 복지 용구 판매 및 대여
Green S Service : 실내 공기 품질(AQ) 개선, 바닥 마감재 특별 관리

Outsourcing Frontier
대표사 (주) 삼구아이엔씨
서울시 종로구 여의대방로 24길 92 삼구빌딩 · 대표전화 02-828-3939 · 전국공통 1588-2239
<http://www.samkoo.com>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dongguk UNIVERSITY

세계 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주)에스엠엔지니어링 회장 인 중식 (경제학과 5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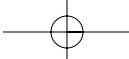
**세계적인 명석!!
남산석으로 조성된 불상**

사업 영역

◆ 불교 조각 ◆ 자연석

CEO : 한 등식 (010-3501-6066)
경북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610-4
Tel : 054-777-0404, F.A.X : 054-776-9504
<http://www.wdston.com>, E-mail : od0404@daum.net

외동석재
oedong stone company



【14】 2017년 1월 12일 (목)

회비 납부

제240호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금액 · 가나다 순

< 2016년 10월 1일 ~ 2017년 1월 10일 접수분 >

고문분담금

김종규(58경제)
100만원김희형(56정치)
100만원안채란(48국문)
100만원형종호(56법학)
100만원홍치유(58물리)
100만원홍파스님(63불교)
100만원오수환(84법학)
100만원홍석표(75경영)
100만원

부회장회비

김수창(65불교)
100김영학(63경행)
100만원김오현(76체교)
100만원김재경(57경제)
100만원김한환(68연료)
100만원문효자(62국문)
100만원박대신(69국문)
100만원박순(66불교)
100만원박태권(70정외)
100만원서승훈(73정외)
100만원성우스님(77승가)
100만원성해스님(88교원)
100만원신동수(71경영)
100만원유병완(64상학)
100만원윤준민(81사학)
100만원이두환(75경행)
100만원이환섭(71경행)
100만원정연수(70과교)
100만원차연신(85연영)
100만원차준은(64경영)
100만원최진식(77무역)
100만원최희수(80승가)
100만원홍기영(76화공)
100만원

지도위원 30만원

법현스님(80승가)

양성호(72경행)

안병국(71건공)

이명선(67농학)

여운소(65경제)

염동락(75국교)

오선호(84영문)

윤종원(81한의)

이창수(80회계)

이호중(85행정)

황명선(77정외)

이문호(72임학)

지재성(78공경)

진재경(73영문)

권기종(60불교)

김명희(85미술)

김병희(83회계)

김석기(85행원)

김억겸(64농학)

김완규(63농학)

김인종(77회계)

김준태

김진관(11정외)

김길희(67경영)

강준석(83경행)

공영대(78화학)

김경자(81영문)

김옥경(64응생)

10

박운규(85토공)

박인동(79사회)

20

김인호(01국원)

박학수(64경영)

김정락(96행원)

남평우(78농생)

성녹영(86물리)

회비 3만원

연회비 3만원

강민지(84경원)

강중식(57수학)

고경수(03경원)

고재선(78행정)

고태복(69식공)

곽동해(85미술)

관음사

구광모(74행정)

권혁찬(08경영)

기우일(63식공)

김강호(58경제)

김광열(58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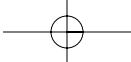
김기우(90법학)

김동익(61식공)

김문재(84국문)

회비 10만원

회비 10만원</



제240호

회비납부

2017년 1월 12일 (목) [15]

2016 동국인의 밤 협찬금

							
전영화 총동창회장 300만원	법인이사장 자광스님 100만원	송석구(58철학) 100만원	송석환(64농경) 300만원	김진문(64경영) 300만원	한우삼(63농학) 100만원	서영준(64법학) 100만원	최상철(64경영) 100만원
							
김오현(76체교) 500만원	성영석(67경영) 100만원	해운스님(11불교) 100만원	홍종표(94행원) 100만원	85학번 동기회(회장:안영찬) 200만원	경제학과동창회(회장:송일호) 100만원	82학번 동기회(회장:윤병관) 100만원	

2016 동국인의 밤 물품협찬

모교총장 보광스님
TV 1대

경주총장 이대원
TV 1대

오정석(72농학)
100만원 행사 주최

100만원 이하 협찬금

고용규(70정외) = 50만원	유재만 = 50만원
국제통상학과(회장:신영태) = 50만원	경하현성스님(72행원) = 30만원
상수회(회장:어연호) = 50만원	임규영(68경제) = 30만원
서영수(81행원) = 50만원	지만호(87행원) = 5만원

회비 정성은 동국인의 자긍심을 빛내는 투자입니다

회원 권익과 후배 장학사업, 동창회보 발행등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고문 1백만원이상
 - 부회장 1백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 년회비 3만원

납부방법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2-718184 신한은행 100-030-783610
국민은행 006001-04-237869 하나은행 150-22-01536-0
 - 지로납부 : 7500891(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A large, modern, 3D-style sign for Dongguk University. The word "dongguk" is written in a lowercase, rounded font, and "UNIVERSITY" is written in a larger, uppercase, sans-serif font below it. The letters are a light grey color and are mounted on a metal frame. In the background, there are buildings and trees under a clear blue sky with some white clouds.

태양금속공업 (주)

회장 한 우 삼

(경영학과 63학번)

www.taeyangmetal.co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Tel. 031) 490-5500 (代), 031) 490-5770, 5767
Fax. 031) 492-5234 / E-mail. wshahn@taeyangmetal.com



【16】 2017년 1월 12일 (목)

전 면 광 고

제240호



“사랑한다면 약속하세요.”

또랑또랑한 우리 딸, 때론 티없이 순수한 모습으로

난처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그 모습마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평생 든든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가족사랑 약속
을 지키는

동부화재

